



화순전남대병원 금연센터 “금연 문화 확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금연지원센터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금연 문화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

26일 화순전남대병원에는 최근 전남금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근로자 맞춤형 금연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남도경찰청과 전남소방본부를 ‘금연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전남도경찰청은 본청과 지역 5개 경찰서에서 97명이 금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가운데 현재 88명이 금연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지역 소방서를 포함해 모두 135명이 신청, 총 75명이 서비스에 등록했다.

두 기관은 전남금연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사업장 근로자 맞춤형 금연 서비스를 통해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까지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며, 소속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병하기자



박상길 남구의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광주 남부경찰은 지난 25일 ‘남구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제정 등 자치경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상길 남구의원에게 광주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다.

앞서 지난 6월 남부경찰 범죄예방계·남구 총무과 실무부서 검토 협의를 시작으로 7월 남구의회 조례 제안설명과 관계기관 협력 등 3차 실무 협의를 통해 입법 준비가 추진됐고, 이후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길의원의 발의를 통해 10월2일 조례가 공포됐다. 이는 지역의 치안 현안을 관계기관 간 공유 및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장비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자치경찰 치안서비스 수요 실효성을 확보하고 치안 안전도 평가 향상 등을 기대하기 위함이다. 윤준명 기자

호남대 박민지 선임연구원,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상

박민지(사진) 호남대 창업보육센터 선임연구원이 지난 22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열린 ‘2024년 광주·전남·제주 창업보육인의 밤’ 행사에서 창업보육 부문 우수 유공자로 선정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광주전남창업보육협의회 주관으로 2024년도 신기술창업 활성화에 공로가 큰 창업보육 유공자 및 신기술창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민지 매니저는 (사)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시행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과 입주기업 보육지원등 창업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호남대BI 센터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및 경영평가에 최우수(S등급) 기관 선정’에도 기여했다. 최동한 기자



1999년 개소한 호남대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초기 기업에게 보육공간, 경영 기술지도와 정보 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돕고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하는 전문보육기관으로, 2021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3년간 중기청 운영평가에서 S등급 및 ‘BI 리모델링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광주전남제주에는 36개 창업보육센터가 있으며, 이번 표창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2명(창업보육유공자 1명, 우수신기술 창업인 1명)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5명(창업보육유공자 3명, 우수신기술 창업인 2명), 및 (사)한국창업보육협회장상 2명 등 총 9명이 선정돼 수상했다.



광산구 ‘제10회 올해의 SNS 대상’ 3관왕

광주 광산구는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제10회 2024 올해의 SNS 대상’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제10회 2024 올해의 SNS 대상은 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 누리소통망(SNS)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소셜미디어·인터넷 분야의 시상식이다.

광산구는 유튜브 대상, 블로그·카카오톡 최우수상 등 각 온라인채널 기반(플랫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유튜브 부문은 구성 정책 및 주요 행사를 최신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로 제작해 실시간 소통 및 구민 참여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블로그, 카카오톡 부문 역시 참신하고 톡톡 튀는 콘텐츠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상철 기자



서구자원봉사센터 ‘2024 성과공유회’ 성료

광주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5일 일가정지원본부 대강당에서 ‘2024년 자원봉사캠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이번 공유회는 17개 동에서 활동하는 200여명의 캠프지들이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각 동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봉사 프로그램들을 공유했다.

농성1동은 ‘어르신과 함께 동화 듣고 요리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경로당 어르신들과 추억의 동화를 읽고 간식을 만들며 정을 나누는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외로움 해소와 세대 간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무2동의 ‘나눔 고추장, 향기톡톡 방향제’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이 봉사활동의 주제로 참여하는 혁신적인 접근으로 주목받았다. 정상이 기자



광주환경공단,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봉사’

광주환경공단은 최근 가을 추수가 끝난 시점을 맞아 광주제2하수처리장 주변 마을 농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봉사’를 실시했다. (사진)

26일 광주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번 봉사는 공단의 기계·전기 기술자 13명이 본덕 유림마을을 직접 방문해 트랙터, 경운기, 예초기 등 고장 빈도가 높은 농기계의 안전 점검 및 수리를 진행했다. 또한 농민들이 스스로 농기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 요령과 안전 및 환경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농기계 사용이 많은 영농철에 공단 직원들의 재능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농기계 수리 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기초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기자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연탄 나눔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26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2024년 사랑의 연탄나눔 전달식을 갖고 지역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4만5000장을 박재홍 지사회장에게 기부했다. (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2015년부터 회원사와 함께 하는 연탄나눔 후원을 통해 올해까지 총 17만9000장의 연탄을 후원했다.

이날 기증된 연탄은 고운주택, 흥중건설, 영무건설, 대성건설, 광신종합건설, 모아종합건설, 모아건설산업, 골드클래스, 리채, 리젠시빌주택, 대광건설, 국제건설산업, 승원종합건설, 대라주택건설, 우미개발, 우미건설, 우현건설, 고운건설, 삼호도시개발, 문장건설, 태호, 엠에스글로벌 등 22개 회원사가 후원에 동참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 상무초, 사랑의 편지와 쌀 기부식

광주 서구 금호1동 아이들의 착한 쌀 기부식이 26일 상무초등학교 꿈마루터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상무초 학생들은 지난 2021년부터 개교기념일(12월1일)을 기념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발적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는 백미 약 200봉지와 정성껏 늘려온 편지를 전달했다.

학생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가 가져온 쌀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우리동네에 결실 어린이가 없으면 좋겠다” 등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금호1동은 학생들로부터 전달받은 이 쌀을 관내 차상위 및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뒀주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상무초 교사는 “아이들의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 기쁘고, 아이들이 매년 나눔의 가치를 몸소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뿌듯하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민희진, 하이브 홍보책임자·홍보실장 배임 혐의 고발

민희진(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퇴사하며 본격적인 법정다툼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하이브 홍보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6일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마플컨설팅그룹은 “어제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 하이브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이들은 하이브의 웨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지는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어도어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10월17일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 통과를 의결했지만, 민 전 대표는 결국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며 장외투쟁을 본격화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김태호 대표를 비롯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경영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그룹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법무법인은 “김 대표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론플레이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 전 대표의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프로듀싱하면서 뉴진스의 제작 포물러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이를 부인하며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오는 2023년 1월10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원고소가는 20억원이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이 김 대표 등을 고소한 내용의 심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혜 기자